

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노원

2021

좋은 취업 일자리
이름 한마당

노원구

일자리박람회

2021년 10월 21일(목)~10월 22일(금)

11:00 ~ 17:00

등나무문화공원

[서울 서림 북서울 미술관 앞]

[7호선 아계역 1번출구 도보 5분]



대 상 전계층

기 업 우수 중견, 중소기업 35개 업체 참여

부대행사



AI면접



프레디저



VR면접



인적성검사



면접사진촬영

주 관



노원구청 (문의 일자리경제과 02-2116-3479)

후 원

KBIZ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

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

고용노동부
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

INNOBIZ
이노비즈협회

※ 온라인 사전접수(www.nowon.kr), 마스크 착용 필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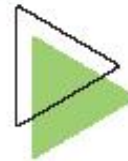


노원구와 인덕대가 함께하는

제11회 창업 & 지역경제 한마당



idu 인덕대학교



일시

2021.10.21(목) ~ 10.22(금)

중계근린공원

(7호선 하계역 6번출구 도보 5분)

개막식 : 11:00

시간 : 11:00 ~ 17:00

문의 : 인덕대학교 창업지원단
(02-950-7093)



창업관

- 창업기업관
- 창업동아리관
- BI기업관

체험관

- 비누공예
- 네일아트
- 캘리그래피
- 스트레스진단
- 건강진단

지역경제관

- 일자리관
- 프리마켓관
- 지역경제관

이벤트

- 원스톱 창업상담창구
- 스탬프투어(기념품 증정)
- 개막식 행사
- 우수 창업 제품 전시



코로나 시대 **사회적기업의 당면 과제와 미래**를 논하다

- 2021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개최 (주제: 전환의 시대와 사회적경제의 미래)
- '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무하마드 유누스, 기초연설자로 나서
- 종사자·학계 전문가 등 20여명, 주제별* 발제 및 토론 진행

* ① 공공책임조달 / ② 민간기업-사회적경제 협력 / ③ 시민사회·소비자 참여 활성화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가 주최하고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원장 정현곤)이 주관하는 「2021 사회적기업 국제포럼」이 10.13.(수)~10.14.(목) 양일간 페럼타워(서울 중구)에서 개최됐다.

* 주요 참석자: 무하마드 유누스 유누스 센터 의장, 앤드류 오브라이언 영국 사회적기업 협의회 대외협력이사, 김용진 서강대 교수,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장 등

- 올해 국제포럼의 주제는 “연대와 협력으로 세상을 바꾸다: 전환의 시대와 사회적경제의 미래”로, 코로나 대유행 이후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변화 요구에 따른 사회적경제의 대응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조명하는 것으로 기획됐다.

□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은 매년 국내외 유관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들을 초청해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이다.

- 연간 500여명의 관계자·일반인이 참여하여 국내외 사회적기업 정책 및 사회적경제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한다.
- '12년 이후 10차례 개최된 국제포럼은 사회적기업 월드포럼(SEWF 2021), 멕시코 국제사회적경제포럼(Gsef 2021, Mexico) 등과 더불어 사회적경제 다자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.

<연도별 국제포럼 주제>

- (2012년) "아시아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과의 연대"
- (2013년) "아시아 사회적기업의 미래와 도전과제"
- (2014년) "사회적경제의 주체, 사회적기업"
- (2015년) "청년이여, 사회적기업을 통해 세상을 보라"
- (2016년) "사회적기업의 사회혁신"
- (2017년) "사회적기업, 새로운 10년을 위한 국제사회연대"
- (2018년) "포용성장의 동력, 사회적경제"
- (2019년) "아시아, 사회적경제 임팩트를 넓히다"
- (2020년) "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경제의 역할,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중심으로"

□ 한편, 올해 국제포럼은 사회적경제 영역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'2일차-토크콘서트'를 별도로 진행*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.

* 사전 등록된 온라인 청중단 30여 명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론에 직접 참여

[1일차] 본 행사

<해외 기조연설> 사회적기업이 만드는 미래, 3가지 제로(zero, 0) 사회

- 10.13.(수) 진행된 행사에서 무하마드 유누스(Muhammad Yunus) 의장은 "사회적기업은 사회를 변화시키고,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기보다 모두를 위한 모든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체이다"라고 강조하며,
 - 사회적기업을 통해 3가지 제로(0)의 세상, 순탄소 배출량 제로, 부의 집중화 제로, 실업률 제로의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했다.

<국내 기조연설> 대전환 시대, 사회적경제의 진화 방향

-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"코로나19 이후 대전환기를 맞아 디지털 변혁과 ESG 경영의 강화 등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, 사회적 약자들의 소외와 불평등, 빈익빈 부익부, 경제·사회적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"라면서,

- “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체성의 회복,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, 사회적경제기업들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”라고 강조했다.

<발제 및 토론> 공공·민간·시민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이 나아갈 방향

- 이어서 진행된 발제에서는 프랑스, 한국, 영국의 사회적기업 지원 사례를 소개하며, 공공조달을 비롯한 다양한 화두에 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.

<발제 사례 소개>

<프랑스> 사회가치 기반 공공조달 사례: “파리 올림픽”

- **요안 노기에(Yoan Noguier) 유누스 스포츠 허브 공동설립자**는 역사상 가장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파리 올림픽 개최를 위한 사회적기업 공공조달(public procurement) 사례를 소개
- 파리와 올림픽 주관기관, 비영리단체들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발족한 ‘사회연대경제 2024(ESS 2024)’ 플랫폼은 올림픽을 진행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사회적기업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
- 다양한 주체들간의 파트너십과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

<한국> SK 사회성과인센티브(SPC)의 성과와 향후 과제

- **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장**은 사회적기업·소셜벤처 등의 사회적성과를 측정하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SK그룹의 사회성과인센티브(SPC) 프로그램 및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소개
- 사회적성과를 측정하고 현금으로 보상을 받은 대표적인 사회적기업들을 제시하면서, 코로나-19 상황에서도 이들 기업의 사회적·경제적 성과는 증가하였음을 강조
- 사회문제 해결에서 기업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, 특히 재정 부족이나 시장실패 상황에서 민간의 사회성과 측정과 보상 기제가 주요한 대안이 될 것임을 언급

<영국> 소비를 통한 사회가치 실천: 영국 바이소셜(Buy Social) 캠페인

- **앤드류 오브라이언(Andrew O'brien) 영국사회적기업협의회 대외협력이사**는 사회적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해 시작한 영국 ‘바이소셜 캠페인’ 추진 경험 및 주요 성과를 공유
- 구매자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충성도, 비대면 방식으로 사업 전환,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 대유행 시기 영국의 사회적기업 부문이 적응하고 생존한 경험을 소개
-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해 특히 소비자들이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시 재생산되는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, 지속적인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

(2일차) 토크콘서트



- 10.14.(목) 진행된 토크콘서트에서는 ‘연대와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사회적기업들의 이야기’를 주제로, 고립과 소외 등 현대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국내외 사회적기업 사례들을 공유했다.

<토크콘서트 내용>

- **마커스 왓슨(Marcus Watson) 백트랙웍스 매니저** 
 -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지역의 취약 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과 공동주거공간 제공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사례 공유
- **이문수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** 
 - '3천원 김치찌개로 잘 알려진 청년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저렴한 식당과 무료공유공간, 청년희망로드 등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해 청년들을 응원하는 사업 소개
- **아미 라타나타야(Ami Latanataya) 로컬 얼라이크 재무이사** 
 - 대형 여행사 위주의 대규모 관광으로 인한 태국의 환경파괴와 지역문화 소멸, 현지 주민들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사업 안내
- **이철용 사단법인 캠프 대표** 
 - 필리핀의 도시빈민 이주지역과 소수민족 거주 농촌지역에서 봉제사업, 교육, 친환경 농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현지 주민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례 소개

- 박화진 차관은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로서 사회적기업의 향후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,
 - “국제노동기구(ILO)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등 국제기구에서 사회연대경제(Social and Solidarity Economy)를 통해 코로나 이후 인간 중심의(human-centred)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”라고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을 언급하면서,
 - “한국이 지난 15년간 사회적기업 육성 경험을 토대로, 사람 중심의 사회적기업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사회가치평가체계 구축, 공공구매 확대, 가치소비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류형민 사무관(☎044-202-7430),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 이유진 과장(☎031-697-7847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-	--

고용행정 통계로 본 '21.9월 노동시장 동향

◆ '21.9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1,451만 8천명으로 39만 명 증가

- '21.9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내수 개선과 수출호조 및 비대면,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대다수 업종에서 증가
 - ▶ 전체 가입자수 증감(천명): ('21.5)443→ (6)462→ (7)485→ (8)417→ **(9)390**
- 다만, 8월이후 증가폭이 둔화된 것은 지난해 추경 일자리사업으로 증가했던 공공행정 산업 가입자가 기저효과로 감소했기 때문
 - ▶ 공공행정 산업 가입자수 증감(천명): ('21.5)37 (6)46 (7)49 **(8)-45 (9)-83**

<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증감 추이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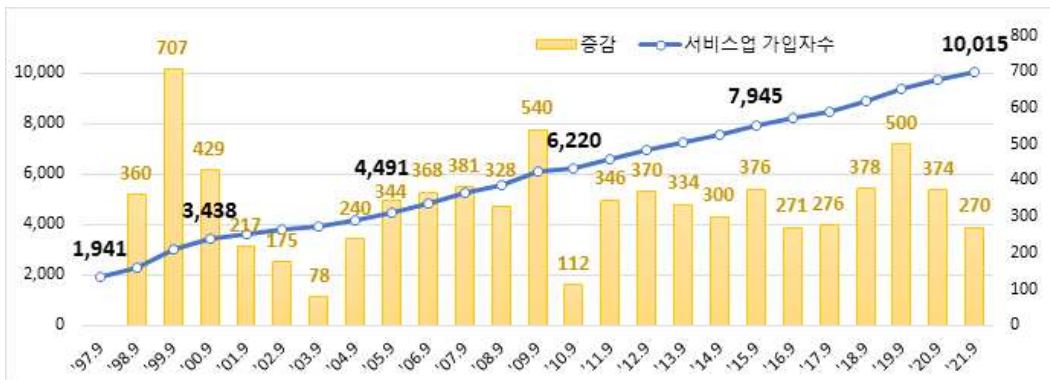


- ▶ 상용임시직 근로자(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)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(%) : ('15)68.1 ('16)68.7 ('17)69.5 ('18)70.7 ('19)71.9 ('20)73.4 **(21.1~8월)73.9**

◆ 고용보험 도입 26년만에 서비스업 가입자 1천만 명 돌파

- 9월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(상용+임시)는 1,001만 5천명으로 '95.7.1. 고용보험 제도 도입 26년만에 1,000만 명 돌파
 - ▶ 서비스업 가입자수 증감(천명): ('21.5)357→ (6)365→ (7)377→ (8)301→ **(9)270**
 - ▶ 194만명('97.9월) → 501만('07.3월) → 801만('15.10월) → 1,002만('21.9월)
-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꾸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적용대상 확대, 두루누리사업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온 성과

<서비스업 가입자 및 증감 장기 추이>



- 비대면 수요증가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, 정부 정책지원 등에 힘입어 출판영상통신, 교육서비스, 보건복지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
 - 다만, 대면서비스업인 숙박음식업, 운수업은 방역지침 준수,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영향으로 어려움 지속
 - ▶ 숙박음식업 가입자수 증감(천명): ('21.5)-12→ (6)-15→ (7)-15→ (8)-19→ **(9)-12**

◆ 제조업 가입자는 '21.1월이후 8개월째 증가 확대

- 제조업은 내수 개선 및 수출 호조로 전기장비, 전자통신, 식료품, 자동차 등 대부분 업종에서 건조한 증가 지속
 - ▶ 제조업 가입자수 증감(천명): ('21.5)58→ (6)68→ (7)79→ (8)86→ **(9)89**

< 제조업 산업중분류별 증감 >



◆ 30대 가입자는 24개월 만에 증가 전환

- 60세미만 전 연령층에서 인구 감소에도 가입자 증가하였으며, 30대는 숙박음식, 제조업 등은 감소폭 축소되고, 보건복지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24개월 만에 증가 전환

*30대 가입자수 증감(천명): ('21.5)-13→ (6)-9→ (7)-2→ (8)-1→ **(9)2**

<연령별 인구 및 고용보험가입자 증감(천명)>

	29세이하	30대	40대	50대	60대이상
인구	-144	-143	-72	-4	+654
고용보험가입자	+80	+2	+32	+121	+155

◆ 구직급여 수혜금액 8개월 만에 1조원을 하회

- 노동시장 회복, 작년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구직급여 신청자(7만9천명)는 '제조업'(-5천명), '도소매'(-4천명), '숙박음식'(-3천명)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0.4%(-2만명) 감소
- 구직급여 수혜자(61만2천명)는 12.3%(-8만6천명) 감소, 수혜금액은 9,754억원으로 1,909억원(-16.4%) 감소하였으며, 1회당 수혜금액은 약 140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.7% 감소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 공공누리	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미래고용분석과 박소영 사무관(☎044-202-7287)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